



정교회주보

제2469호

2024.04.21

한국 정교회 대구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아토스 성산의 수도원 탐방 16> 크세노폰 수도원(사진)은 성산 서쪽에 있다. 10세기 말, 성 디미트리오스 수도원 자리에 지금의 수도원이 세워졌다. 300여 권의 사본과 4,000여 권의 도서, 성 디미트리오스의 손해 등 많은 성물이 보존되어 있다. 성 게오르기오스와 성 디미트리오스의 이름으로 헌정된 성당들을 포함해 내부에 8개, 외부에 6개의 성당이 있다.

사순절 제 5 주일
(성 마리아 이집트인 수녀)
성 이아누아리오스 사제순교자
성 알렉산드라 왕비
(제5조 • 조과 복음 2)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제5조 부활 찬양송 82
- 성 마리아 이집트인 수녀 찬양송 ...
(비교정 축일 성가집) 51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히브리 9,11~14 ... 234
- 복음경 : 마르코 10,32~45 ... 141
- 성모송 62

나는 착한 목자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금방 그 음성에 익숙해집니다. 감히 말하건대, 우리는 예수님의 음조, 그분의 고유한 대화법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조용하고 분명합니다. 구세주의 참된 말씀은 우리의 무의식의 메아리나 혹은 적의 비난과 똑같은 음성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각각에서, 우리는 뭔가 굳건한 마침표, 불확실성과 논쟁을 마감하는 마침표를 봅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요한 10,27)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그분의 억양에 친숙해짐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 발견하고, 그분의 양이 됩니다.

'예수' 중에서 [정교회출판사]

몸과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 (2)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지난 3월 31일 주보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정 교회가 인간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관심이 있다는 사실은 다 음에서도 드러납니다.

2. 교회의 예배 생활에서

가. 정교회 예배는 영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몸으로, 모든 감각을 이용하여 참여합니다.

시각으로 참여합니다. 예배 때 눈으로 성화들을 바라보니 그렇습니다.

청각으로 참여합니다. 귀로 성가를 들으니 그렇습니다.

후각으로 참여합니다. 성당에 퍼져 나가는 향 냄새를 맡으니 그렇습니다.

맛으로도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실 때 그렇습니다.

또한, 십자가 성호를 긋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 몸을 이용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 육체와 관련된 성사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두 성(性) 사이의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축복하는 결혼성사가 그것입니다. 또,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 거행되는 성유성사도 있습니다.

다. 우리는 성인들의 성해(聖骸)를 공경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성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몸에도 머문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의 시신을 공경의 마음으로 무덤에 매장합니다. 화장(火葬)하는 것은 육신에 대한 훼손이며 경시라고 여깁니다.

3.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 정념(정욕)은 정신적인 상태이지만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에게 미움 대신 사랑을, 분노 대신 온유함을, 탐식 대신 절제를, 근심과 걱정 대신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인도할 때, 이는 우리의 건강에 아주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됩니다.

나. 교회는, 수세기 동안, 특히 오늘날,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과 방법을 통해,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가 사람 몸을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로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 몸은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고린토 전 6,19)

물론 우리는 영혼과 몸을 보살피는 문제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아주 조심하고 신경써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몸에 대한 숭배’가 널리 퍼져있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이들이 육체에만 관심을 갖고, 영혼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일례로, 성 대 바실리오스는 ‘몸에 대한 숭배’를 비난하고, ‘영혼의 부지런함’과 ‘불멸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사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권면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으니, 여러분은 자기 몸과 영혼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고린토 전 6,20 참조)

하느님이 존재하신다고 누가 말하는가?(2)

성 니콜라이 벨리미로비치 (1880-1956)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이제 막 세례받은 어느 교사에게 보낸 편지

“바다와 하늘 또한 증거이다. 친구여, 만일 당신이 바다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바라본다면, 바다와 하늘이 그 증거임을 알 수 있다네. 산과 바람과 숲과 개미독과 벌집, 그리고 지구상의 바다와 하늘과 산과 숲과 언덕 안에 사는 모든 것들과 밀랍(蜜蠟)의 방들이 증거인 것처럼 말이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당신은 하늘에서 하느님의 사랑어린 음성이 “...생겨라, ...되어라, ...있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창세기 1장)하는 축제처럼 기쁜 순간에 다르게 될 것이네.

또 이사야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소와 당나귀가 그 증거라네. ‘황소도 주인을 알고, 당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친구여, 하늘 아래 어떤 물질이 하느님을 증거하지 않는지 내게 말해보시오. 당신이 이 무의미한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백 년의 시간을 쓴다 하더라도 당신은 창조주의 위대함과 능력을 증언하지 않는 풀잎 한 조각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네.

창조 세계 전체의 질서와 비율과 수와 신성한 조화가 그 증거이네. 모든 거룩한 사람들의 정신과 양심이 증거이네. 하지만 그 어떤 사물과 사람들보다도 우리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다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느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인류를 찾아와 주시고, 신비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고, 길을 보

여주시고, 낙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네. 하느님이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자네의 눈으로 하느님을 보고, 자네의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나. 그러면 당신은 볼 것이고, 들을 것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네.”

나의 자녀여, 이것이 애타게 하느님을 찾고 보고 듣기를 원하는 불쌍한 영혼에게 그대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거대한 들판에 놓여있는 그저 작은 한 다발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들판 안에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창조주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른 어떤 이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 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딸이여, 그대는 계속해서 덕을 쌓으며 성장해 나가십시오.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쪽도 바라보지 말고, 그저 구원의 길만을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하느님께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그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증언했는지에 대해 하느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 자리에는 두 등급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영광의 하느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마르코 8,38 참조)일 것입니다.

사순절 예배 안내

- * 화, 목 오후 5시
석후대과
- * 수요일(4/24) / 금요일(4/26)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 토요일(4/27) 오전 9시
라자로의 부활 토요일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



소식

■ 부활절 달걀과 꽃 봉헌 신청
부활절 달걀과 에피타피오스 꽃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성당 꽃 심기
지난 주일, 꽃 심기와 마당 정리를 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세월호 10주기 기억식 참석
지난 16일(화),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테오도티 이정아 사모, 끼릴로스 김국형 교우가 참석했습니다.

성 대 주간 및 부활절 예배 안내

4월 28일	성지 주일	오전 8:45	조과, 성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오후 1:30	신랑 의식
4월 29일	성 대 월요일	오후 6:00	신랑 의식
4월 30일	성 대 화요일	오전 9:00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6:00	신랑 의식
5월 1일	성 대 수요일	오전 9:00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6:00	성유 성사
5월 2일	성 대 목요일	오전 9:00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6:00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식 (12 복음 봉독)
5월 3일	성 대 금요일	오전 9:00	대시과 (1, 3, 6 시과)
		오후 3:00	9시과, 만과,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의식
		오후 6:00	에피타피오스 의식
5월 4일	성 대 토요일	오전 9:00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8:00	부활절 의식,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5월 5일	부활 주일	오전 11:00	사랑의 대만과

(지역 성당 예배 시간은 해당 성당에 문의 바랍니다.)

성인의 가르침

영혼을 위해

머릿속에 사악한 생각이나 유혹 같은 것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형제에게 모세 사부가 대답했다.

“울면서 하느님의 선하심으로 달려가 온 힘을 다해 그대의 영혼을 위해 도움을 구하고 외치시오. 하느님께서 성서에 기록된 것처럼 당신을 부르는 이들 곁에 계실 것이오.”